

구글·애플 '앱마켓 독점' 막는다

세계 90% 점유...글로벌 IT기업 에픽게임즈 '반독점법 위반' 소송 韓, '글로벌 윈스토어' 진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상임위 통과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iOS는 앱스토어. 두 '터줏대감' 플랫폼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앱마켓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세계 IT기업부터 미국 의회, 유럽 연합(EU), 우리나라 국회까지 구글·애플의 '앱마켓 독점'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전세계 앱마켓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모바일사업연합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이 이용하는 '앱마켓 플랫폼 현황' (복수응답)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94.7%, 애플 앱스토어 71.5%로 나타났다. 반면 윈스토어 이용률은 35.8%, 아마존스토어·갤럭시스토어 등 기타 마켓 이용률은 6.15%에 불과했다.

이처럼 압도적인 점유율은 구글·애플에게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제공했다. 이는 앱 개발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강요하고, 경쟁 앱마켓 등장을 차단·통제하는 등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IT 기업 에픽게임즈가 지난해 애플에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전'이 불씨가 됐다. 지난해 에픽게임즈가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적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자, 구글·애플은 해당 앱을 앱스토어에서 아예 퇴출시켜 버렸다. 에픽 게임즈는 이에 반발해 애플이 경쟁 앱마켓의 등장을 가로막고 앱 판매액의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에 이어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테이트 앤 '틴더'의 모회사 매치그룹 등 관계자들도 애플·구글에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비영리단체 '앱 공정성 연합' (CAF)을 결성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 제공, 시장 경쟁을 촉진, 앱 개발자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는 결제 시스템 허용 등을 주장했다.

이후 구글·애플의 독점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이어졌다. 지난 6월에는 미 의회 하원 반독점소위원회가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5개 플랫폼 규제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미 37개 주 정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EU 집행위원회도 애플을 앱스토어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향이 있었다. 지난 7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자에게 자사 앱·콘텐츠 결제 방식을 강요하거나 다른 앱마켓 이용을 방해, 부당하게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행위를 막는 법안이다. 법안은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중복규제가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고 재검토 과정에 들어갔다.

직접 새로운 앱마켓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윈스토어는 내년 '글로벌 윈스토어'를 론칭,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윈스토어는 지난 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이크로소프트(MS), 텐센트 클라우드 등 기업과 협력해 글로벌 윈스토어를 론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MS 클라우드 '애저'를 기반으로 개발, 텐센트 클라우드를 활용해 모바일과 PC를 넘나드는 크로스플랫폼 앱도 유치할 복안이다.

윈스토어는 지난 2018년 앱마켓 수수료율 20%로 낮추고, 자체 결제를 허용하며 수수료율 5%로 내리는 등 정책으로 눈길을 끌었다. 2016년 출범한 후발주자면서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던 배경이다.

이같은 '서드파티' 앱마켓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앱 콘텐츠, 더 편리한 결제 수단을 유지하는 등 경쟁이 활성화되고 앱 개발자도 수수료 압박을 더는 등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SNS엔 왜 분노가 넘쳐날까?

美 연구팀, 분노 표현에 '좋아요' 받으면 분노 증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는 왜 분노가 넘쳐날까? 소셜미디어에서 게시물에 대한 공감 등을 표현하는 '좋아요' (Like)나 '공유' (Share) 같은 피드백 기능이 도덕적 분노 표현을 증폭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예일대 물리 크로켓 교수·윌리엄 브래디 박사팀은 23일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Science Advances)에서 트위터에서 도덕적 분노 표현을 측정하고, '좋아요·공유'가 사람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 분노 표현에 긍정적 반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분노 표현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도덕적 분노 표현을 증폭시키는 것은 그런 표현들이 '좋아요'와 '공유'로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온건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용자들이 이런 보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브래디 박사는 "소셜미디어의 보상 구조가 온라인 정치 토론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며 "이 연구 결과는 소셜미디어의 기본적 보상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첫 증거"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가 자신들은 온라인 대화를 위한 중립적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많은 사람이 소셜미디어가 분노를 증폭시킬 것으로 추측해 왔지만 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는 기술적

어려움이 컸다.

연구팀은 논란이 많은 실제 사건에 대한 트위터에서 도덕적 분노를 측정하고, 인기 콘텐츠를 게시하면 보상을 해주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분노 표현을 부추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통제 실험을 통해 실험 참가자들의 행동 변화를 연구했다.

이들은 트위터 게시물에서 도덕적 분노를 추적하는 기계학습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트위터 사용자 7331명이 올린 127만 건의 글을 분석, 특정 사건에 대한 사용자들의 분노 표현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했다.

그 결과 소셜미디어의 보상 체계가 실제로 사용자가 글을 올리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 표현에 대해 '좋아요'와 '리트윗' (retweets)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후 분노 표현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또 분노 표현에 대한 보상이 사용자의 분노 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트위터 사용자 240명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 각각 분노 표현이 담긴 글과 중립적 표현이 담긴 글을 먼저 제시하고 '좋아요·공유'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글을 선택하게 하는 등의 실험을 했다.

그 결과 분노 표현에 노출된 실험 참가자들은 중립적 표현에 노출된 사람보다 분노 표현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컸고, 시간이 흐르면서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분노 표현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日, 화성 토양 시료 미·중보다 먼저 가져올 것

일본이 '붉은 행성' 화성에 이미 로버를 보내 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서 화성 토양 시료를 지구로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지난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화성의 두 위성(달) 중 안쪽에 있는 '포보스' (Phobos)를 목표로 탐사선을 발사해 2029년까지 토양 시료를 10g을 채취해 돌아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의 먼지폭풍으로 포보스 토양에 화성 물질이 섞여 있는데 이를 지구로 가져와 화성의 생물권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실현되면 JAXA의 공인대로 미국, 중국보다 빨리 화성 토양시료를 확보하는 셈이 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 2월 예제로 크레이터에 착륙해 탐사 활동을 벌이는 '퍼서버어런스' (Perseverance)호가 암석과 토양시료를 채취해 놓으면 유럽우주국(ESA)과 제휴해 발사할 우주선을 통해 회수한다는 계획으로, 일러야 2031년 쯤 지구에 도착할 예정이다.

화성 탐사 로버 '주룽' (祝融)을 화성에 안착시키며 '우주 굴기'를 과시한 중국국가항천국도 2030년 즈음에나 화성 토양시료를 지구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태양계 수성 안쪽에 새 소행성 관측

태양계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행성인 수성보다도 태양에 더 근접하는 소행성이 관측됐다. 지름이 1km 정도인 이 소행성은 태양에 약 2000만km까지 접근한다. 이는 수성의 근일점(近日點) 4600만km의 절반이 채 안 되는 거리다.

타원형 궤도를 가져 태양을 한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13일로 수성(88일)보다 길다.

미국 국립 광학·적외선 천문학연구소(NOIRLab)에 따르면 '2021 PH27'로 명명된 이 소행성은 카네기과학연구소의 스콧 셰퍼드 교수가 칠레 '세로 토롤로 범미주 천문대' (CTIO)의 직경 4m 빅터 M. 블랑코 망원경에 장착된 안측에너지 카메라(DECAM)로 수집한 자료에서 찾아냈다.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암흑에너지 연구를 위해 개발된 DECAM은 570 메가픽셀의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는데, 지난 13일 일몰 직후

하늘에서 이 소행성을 처음 포착했다. 이후 라스 캄파나스 천문대의 마젤랑망원경과 라스 캄브레스 천문대 망원경에도 잡혀 구체적 분석이 이뤄지게 됐다.

연구팀은 2021 PH27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근일점 때 표면 온도가 납도 녹일 수 있는 섭씨 500도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타원 궤도 장축 길이의 절반을 나타내는 궤도 장반경이 7000만km로 수성과 금성을 넘어서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소행성 중에서는 가장 짧은 것으로 기록됐다.

지구 궤도 안쪽에만 있는 이른바 '아티라' (Atira) 소행성은 태양 빛에 가려있어 관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몰 직후나 동틀기 전 어스름한 빛에서만 제한적으로 관측이 가능해 지금까지 20개만 파악돼 있다.

2021 PH27의 가원은 추가 관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현재는 태양 뒤로 들어선 상태라 내년 초에나 관측이 재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세상을 바꾸세요! 스티브 잡스, 1980'

잡스 사인 담긴 애플 II 컴퓨터 사용설명서 9억 낙찰

애플 공동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컴퓨터 사용설명서가 9억여 원에 팔렸다. <사진>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경매업체 RR옥션은 19일(현지시간) 잡스의 친필 사인이 적힌 애플 II 컴퓨터 사용설명서가 무려 78만7484 달러(한화 9억2000여만 원)에 팔렸다고 밝혔다.

낙찰자는 미국프로풋볼(NFL) 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구단주 짐 이르세이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2세기 동안 가장 위대하고 혁신적인 인물을 꼽을 때 잡스가 분명히 포함돼야 한다"며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 등을 바꿔줬다"고 말했다.

이번에 판매된 설명서는 196페이지 분량으로, 목차 맞은편에 '졸리언, 당신 세대는 컴퓨터와 함께 자라는 첫 세대입니다. 세상을 바꾸세요! 스티브 잡스, 1980'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 아래에는 애플 초기 투자자이자 2번째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크 마쿨라 서명도 적혀있다.



RR옥션은 또 이 사용설명서에 적힌 친필 사인은 잡스와 마쿨라가 영국을 방문했을 당시 애플 제품 유통을 담당했던 한 현지 기업가의 아들인 줄리언 브루어 씨에게 써 준 것이라고 전했다.

브루어 씨는 "당시 침대에서 애플II로 게임을 하던 중 아버지가 불러 가보니 놀랍게도 잡스와 마쿨라가 있어 사용설명서를 가져갔다"며 "나중에서야 잡스가 이처럼 서명을 하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알게 됐다"고 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범	목지상담융합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계	93	29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목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형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형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소로 36